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New Year에 주어진 크로노스(Χρόνος)의 시간들을 카이로스(καιρός)의 시간으로 채워 나가야한다. 여기서 믿음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새해의 목표가 사뭇 궁금해진다. 너무나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를 불문코 가장 소중하고 다급한 목표와 꼭 성취할 일이 있다. 바로 휴거(들림)이다(살전4:13-17, 고전15:51).

이는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준비된 믿음으로 들림을 받는 일인 것이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헛 산 것이고, 완전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상살이에서 아무리 실패했거나 가난했다 할지라도 들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자인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자로 자신이 있는가? 당신은 마태복음24장29-31절에 나오는 자들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진실되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어야(Mortal) 할 자가 불멸(Immortal)의 예수님처럼 영체로 변화받아 들림을 받게 된다. 이는 오로지 믿음대로 산 자에게만 허용된다(빌1:27,3:20). 여기서 탈락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판가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이다. 어떻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쓸 것인가를 결단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세상에 미련을 둔다던가, 세상과 타협된 삶을 산다던가, 세상의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요이2:16)에 산다면 그리고 불의와 죄를 끊지 못한다면(계21:8, 롬8:5-7) 이는 휴거(들림)와 상관없고, 천국과도 무관한 자가 될 것이다(갈5:20,21).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과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레19:2).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카다쉬:□□□)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요17:16, 벘전1:15,16).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확고한 거듭남과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요3:3,5,6).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요3:3-8)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그 분을 위해 살겠다는 참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갈2:20) 성령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되므로(엡1:13) 내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영적인 새사람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리될 때 나 혼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요일2:5,6),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골3:10).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들림을 받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들림(휴거)는 하루아침에 별안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본질은 자기부인(κενοσις;케노시스, 마16:24)이다. 이는 하나님이면서도 성육신이 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인성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낮추어 종의 모습이 되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바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부인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 철저한 자기부인으로 죽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초석일진대 만일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심각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케노시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중심적 사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삶으로 바뀌어 무엇을 생각하던, 행동하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에 따라야 마땅하다(마6:33).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을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발견케 될 것이다(민13:17-33).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모든 삶의 방식이 그분을 위해 희생적이어야 한다. 갈렙의 삶이 그랬음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기 원한다(민13:14:22-24).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상의 것은 버리고 세상을 활용하라. 주의 뜻을 실현하고, 믿음에 부합한 삶을 영위하는 도구로써.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므로 주님이 수확코자 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루는 자(요12:24,25)로써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마6:10)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삶, 적어도 산상수훈(마5-7장)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에 부합된 삶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삶이 나의 것이 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될 것이며, 들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들림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 들림을 받는 자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을 주님으로부터 보장받기에 그렇다. 고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며 이에 따른 들림이 되어야 한다. 바라옵건대 모두가 들림을 갈망하여 성취하는 승리의 동역자들이 되어 진정한 성공자로서 새 예루살렘성에서 영원한 복락과 최후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대선 및 총선 결과 여당인 CCM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새로운 잔지바르 자치국 대통령이 들어선 후 세금 징수 제도가 강화되어 이전에 없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되기도 하고, 고질적인 하수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주에 도지사 급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연이어 군수 급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한 인사의 업무처리 성향에 따라 우리의 진행하는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버그린 학교 사역 >

6학년 학생들의 정부시험 성적결과에 따라 중학교 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긴장하며 몇 달간 학교에서 합숙하며 공부를 시킨다는 소식을 지난 편지에 드렸는데요, 4학년 아이들이 지난 12월 14-15일에, 6학년 아이들이 12월 16-21일 까지 국가시험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시험을 잘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 드립니다. 12월 23일에는 졸업식을 하고 방학을 하였는데, 6학년 아이들은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어 아쉬운 작별을 하였는데 어느 학교에 진학하던지 우리 학교에서 그 동안 훈련한대로 말씀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9년 시험성적 결과 잔지바르에서 전체 1등을 해서 아이들 모두 원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각자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성경대학 >

4명의 우리 성경대학 용사들은 지금 세 번째 팀, 지도자의 비전, 팀에 의한 교회 세움(교회개혁), 성령님의 인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엘리야가 약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리와 어깨 등을 다쳐 치료하느라 2주간 결석을 하였습니다. 문병을 가보니 다행히 치료가 잘되어 걷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노아 학교 사역 >

키담니 지역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노아학교 준공식을 하였고, 내년 1월부터 유치원 아이들 40명을 등록 받아 개학할 계획입니다. 건축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대로 학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교육하고 간식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표하자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저희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이슬람 골수신자인 이 지역 군수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 무조건 방해할 뿐 아니라 아예 폐쇄를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학교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지역 관청인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개교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계속 지연시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점검관들이 학교 실사를 나와 보고 시설이 훌륭하다고 걱정 말라고 하여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허가절차가 서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적히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

1. 저희 부부가 성령충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2.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3. 에버그린 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4. 성경대학 학생들이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5. 키담니 노아학교 책걸상 및 비품 구입, 그네, 전기, 수도공사 등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신 귀하신 동역자님들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 주시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6.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7.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 하시고코로나19 전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들이 잘 견디고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송규영,오효숙/민석,은석 선교사



인도는 기독교를 위한 펀드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을 위한 후원만이 허용됩니다

살롱~ 코로나19로 인해 육인 듯 한 상황이었지만, 걸어 온 길을 뒤 돌아보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신실하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선생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지 3달이 되어갑니다. 인도에 못 들어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9월 초부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못들어 가는 것이 왜 병이 되냐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강선생은 머리 생각과 달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통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의 회계사와 줌으로 회의를 할 때는 다 나은 듯하다가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글을 읽을 수도,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자 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평안해하는 날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봉쇄령으로 숨을 쉬지 못하던 증상이 한국에 와서 괜찮아졌습니다. 폐와 심장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선생이 아프면서 다시 숨이 쉬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코가 막혔는가 싶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강선생의 병도, 인도의 사역들도, 나의 삶 조차도 열른 주님께 맡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선생의 우울증과 저의 공황장애는 감사로 다가옵니다. 3달 넘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한 것은 하루 두 시간씩 드리던 기도는 전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강선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선생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전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힘들은 힘등도 아니다'라는 생각과 우리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선생은 주일예배에 참석하던 교회에서 오후예배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동역하는 분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도는 기독교를 위한 펀드의 허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을 위한 후원만이 허용됩니다. 이번 11월달에 인도의 펀드 허용체계가 바뀌면서 인도 회계사와 대책들을 논의 했습니다. 인도는 송금해 오는 기독단체들의 사이트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이 사이트에 복음과 전도와 같은 내용이나, 저희의 인도사역 사진과 이름들을 영어로 올리는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한글도 안전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외국에서 오는 펀드는 받되 그것이 기독교관련 일을 하게 되면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구호단체 직원의 신분으로 후원을 받게 됩니다. 12월부터 새로 적용된 펀드운영체계가 인도의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송금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에서 아버지의 일들이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2위 입니다. 속히 종식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도자들의 성령충만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 1) 5기 학생들 18명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하늘길이 열려서 5기 학생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성령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2020년 하반기에 라자스탄의 5기 바잔랄 목사님과, 유피주의 1기 판카즈와 편잡주의 4기 산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개척되는 사역들은 더욱 견고하여지리라 믿습니다. 바잔랄 목사님과 판카즈, 그리고 산딕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3) 편잡주의 4기 수러즈는 아기를 낳았는데 무호흡증으로 고생하면서, 아기의 회복과 영청나게 불어난 병원비위해 기도요청해 왔습니다. 아기 예레미야가 건강하게 잘 자라 주님의 일군이 되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길..
- 4) 히마찰의 5기 아제이의 집은 길 가에 있습니다. 저녁에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폭행을 하는 바람에 아제이가 조금 다쳤습니다. 의도된 폭행이 아니기에 경찰서에서 용서해 주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아제이가 사는 지역은 기독교인과 말도 섞지 않으려하고, 가게에서 기독인에게 물건도 팔지않는등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아제이의 안전과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5) 깨텔의 2기 라젠드라와 리나는 어린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 암송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모바일로 주일학교 책들을 공부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점검 받는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라젠드라와 리나에게 지혜주시고, 지지치 않고 건강하게 일들을 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웨스트벵갈의 3기 디판까르는 청년사역에 열심입니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전도된 새 신자들의 사진과 기도제목들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웨스트벵갈지역의 복음화와 보드에 접해있는 부탄과 네팔의 복음화에 웨스트벵갈 전도자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현민이는 내년 1월에 장교가 되기위한 훈련과정으로 삼사관학교에 입소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현민이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 강 마이클, 사라 선교사--



코로나 상황도 전보다 좋아져서 하루 1500명정도가 확진되고 있으나 사망율이 낮고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현재 건기로 접어들면서 화창하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전보다 좋아져서 하루 1500명정도가 확진되고 있으나 사망율이 낮고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간 이동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예전의 삶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기에 조심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속 포락아이다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멤버외에 교회안으로 더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후 제공되는 양질의 점심 때문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궁핍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13일 주일에 성탄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일찍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필리핀 최대 명절인 성탄절에 친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풍습때문에 정작 성탄주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는 이들의 잔치 음식인 치킨과 필리핀식 잡채(판씩)와 밥을 도시락으로 200여개를 만들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다음에는 300여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쌀, 설탕, 라면등의 떡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앙헬레스에는 예전 미군이 주둔 할 당시의 영향으로 대규모의 환락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빈민촌에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매주 50여명이 모여 교인 집 앞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와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팬더믹의 상황이라도 주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보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한번 더 크게 외쳐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회사 직원들에게 연극으로 복음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우리 모두 이 은혜 받는 성탄절 되길 기도합니다.

이곳은 이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 각교회 성탄 행사가

22일 운또라, 23일 아팔리아, 24일 무학칼리, 25일 굴산. S&P회사에서 성탄 축하 및 위로의잔치를 올려드렸습니다.

S&P 회사에서는 무학칼리 팀들이 와서 연극으로 복음 전하였습니다. 12월24일에는 회사 직원들 모두 성탄절 잔치했습니다. 밤새 음식준비중입니다. 무학칼리 연극과 성탄메시지 전할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방글라데시 크리스천은 12.25일이 명절입니다. 자콥은 고향 쿤라가서 복음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연극으로 복음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곽보근 김수희선교사--

